



세계 모어의 날

세계 모어의 날(2월 21일)은 1952년 당시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에서 모어인 벙골어 사용 권리 수호를 위해 벌어진 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은 언어가 민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언어는 전통과 지식, 역사를 미래로 전승합니다. 또한, 모어로 학습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을 지키며 가장 쉽고 당당하게 배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강력한 공동체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다국어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는 모어로 배우며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어와 국어는 물론, 국제어까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언어 공존의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개인은 사회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언어 사회에는 다언어 교육과 다자주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평화와 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여정이며, 국제연합(UN)의 목표인 평화, 인권, 국제 협력, 그리고 국가와 민족 간의 우호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언어 정의를 실현하려면 모든 언어와 목소리가 가치를 인정받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언어의 다양성 또한 수호해 나갑시다.

세계에스페란토협회(UEA)는 1908년 창립 이래, 민족 간의 국제적 소통과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언어적 평등을 실현하는 국제어 에스페란토로 소통하며, 각 개인이 인간애를 바탕으로 서로를 발견하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곧 '세계 토착어 10년(20222032)' 여정의 절반에 이르게 됨을 주목합니다. 이 활동의 주요 목적은 토착민의 언어적 인권을 수호하고, 그들이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8일까지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에서 열리는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어적 평등과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인류의 다양성을 함께 기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기를 기대합니다.